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2월 9일 금요일 (음 11월 11일) 제170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오늘은 '박근혜 운명의 날' ... 하루 전, 국회에서는



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17차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문구가 쓰여진 종이를 자리 붙이고 본회의에 임하고 있다.
2.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협의회 주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지방정부 공동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야권-비박계 동참시 207표 이상 탄핵 가결될 듯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르는 탄핵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정가에서는 야권과 비박계까지 확실히 동참하면 최소한 207표로 가결되고, 이탈표가 생기면 190표 내외에 그칠 것이라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300명 의원은 크게 3개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권과 무소속 의원 172명은 사실상 고정된 찬성표라는데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이미 탄핵안 발의에 모두 동참한 만큼 이탈표가 나올 확률은 극히 드물다. 또한 비박계가 주축인 비상국회의의 환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 내에서 확실하게 탄핵에 찬성할 의원은 35명은 확인된다"며 "여기에 친박계 내 내심 탄핵을 찬성하는 '사이 탄핵파'도 있는. 최대 220표까지 내다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친박계는 비박계 내 '사이 박근혜'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지만 탄핵안에 찬성하지 않는 비주류 의원도 있다"며 "비주류 의원이 말하는 것보다 탄핵 찬성의원이 적을 것이라 예측도 해본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3당은 탄핵안 표결에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배수진을 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8

야권, 의원직 사퇴 '초강수'
민주당, 새누리 초재선 압박
국민의당, 탄핵안 표결때까지 국회에서 농성 진행기로
일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의총에서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지도부에 제출하기로 의결을 모았다"며 "탄핵소추안 부결 시 전원 의원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늘 원내대표단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걸고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의 큰 분기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자는 결의를 다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로 보서는 가결 정족수를 조금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이 국면에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다수인데 이들이야말로 기존 정치에 때가 묻지 않아야 하는데 너무 눈치 보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어 "이 분들이 탄핵을 더 강하게

친박의 입장은?
이정현 "언론 보도만으로는 탄핵 사유 삼는 선례 삼으면 공직자들 직무 수행 못한다"
말하고 새누리당 혁신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라며 "보도에 따르면 이 분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눈치를 본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미래를 열 초재선 의원이 국민만 믿고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괄 사퇴서를 작성해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며, "비례대표 의원도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국민의당은 다만 형사소송 진행으로 인해 당원권이 정지된 박선숙·박준영·김수민 의원의 경우 본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괄 사퇴서 작성엔 총 38명의 소속 의원들 중

당원권이 정지된 이들 세 명이 제외한 35명이 참여했다. 이 대변인은 "(총사퇴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며 "제1야당에서 결의를 보이는데 우리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은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아울러 탄핵소추안 표결시까지 국회에서 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을 받들지 못한다면 해산은 당연하다. 이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국회의 역할이고 정의당은 이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어떤 진술이나 언론 보도만을 갖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삼는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대통령직을 포함한 많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탄핵을 중지시키고 '4월 사임 6월 대선'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국회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탄핵 부결을 주장했다. /안재홍 기자
*도·일요일 신문 쉽니다.

도교육청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심 집중'

도, 예산 770억원 편성 촉구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가 내년도에 사용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도 교육청에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 교육청에 올해 누리과정 예산인 약 770억원을 금주 내로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도 교육청에 내려 보낼 법정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을 깎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예산 미편성을 고수해 온 도 교육청 대신 도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누리과정 운영비(188억원)를 자체 재원으로 부담했다. 도가 자체 재원으로 부담했던 것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함이었다. 누리과정 예산은 원아 1인당 보육비(22만원)와 운영비(7만원) 등 총 29만원으로 운영된다. 운영비는 각 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며 보육비는 누리과정 결제가 가능한 보육카드(아이행복카

드)로 결정된다. 그러나 도 교육청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금주 중에 편성하라는 입장을 도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교육청만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은 기자
올 스폰서 노출 효과 1808억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을 차지한 전북 현대가 2,000억원에 가까운 스폰서 노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브랜드 전문 분석 업체인 닐슨스포츠 코리아를 통해 2016시즌 스폰서 노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1,808억원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2위를 차지한 K리그에서 861억원을 기록했고 10년 만에 정상을 밟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947억원으로 크게 재미를 봤다. 지난해 노출 효과 1,027억원이라는 결과를 얻은 전북은 ACL 우승으로 대박을 터뜨렸다. /김민근 기자

제10대 전주시의회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 공부하고 연구하는 혁신 의회
-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실천 의회

의회 본회의

지방의회 체형교실

전주시의회는 66만 시민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청안내: 063-230-3712

전주시의회
http://council.jeonju.go.kr
(의정팀장: 230-3710, 의사팀장: 230-3720, 홍보팀장: 230-3730)